

곰팡이제거제 시장 과열조짐

유공 · 럭키 · 피존 3파전 ... 3~4개기업 참여가능성 검토

93년부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곰팡이제거제 시장이 기존의 유공 · 럭키에 이어 피존이 가세함으로써 3파전 양상으로 본격 가열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살균방향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KODAK의 자사인 L&F가 피존과 기술합작으로 라이졸을 4월부터 본격 출시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제습제 시장은 옥시가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후 7~8개 군소기업들의 난립으로 치열한 판매전이 이루어졌으나 곰팡이제거제 시장은 뚜렷히 형성돼 있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93년5월 유공이 석유 및 LPG탱크내의 미생물 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세계 두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팡이제료를 첫 출시하면서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어 럭키가 8월에 곰팡이아웃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번에 피존이 출시한 라이졸은 다용도 살균제로써 지난 63년 최초로 개발, 미국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럽 · 남미 · 아시아등 전세계 30여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피존은 94년도 라이졸 매출 목표를 50억원으로 잡고 대대적인 판촉에 나설 방침이다.

유공은 93년 팡이제료가 90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94년에도 150억원 정도의 매출 목표와 함께 30억원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유공은 팡이제료를 매潔龍이라는 중국어 상표로 홍콩소재 정원무역유한공사를 통해 수출키로 하고, 3월말 현재까지 300ml짜리 9만개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공은 홍콩 · 말레이시아등 동남아 지역을 중점 수출지역으로 정하고 교섭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럭키는 OPP(orthophenol phenyl)원료를 사용한 곰팡이아웃을 출시, 93년도 5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94년에는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지 럭키는 곰팡이제거제 시장에 적극적인 가담 자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올해부터 첫 수출을 계획하는 등 여러 각도로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동아제약이 곰팡이 제거제와 유사한 제품으로 미국 CYNAMID와 제휴로 파인솔이라는 세척용 살균제를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약 200억원 정도로 피존 · 유공 · 럭키외에 제습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옥시를 비롯, 존슨, 제일제당, 애경등이 시장참여를 엿보고 있어 조만간 곰팡이제거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곰팡이제거제 시장이 섬유나 피부등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곰팡이 종류의 다수로 인해 일괄살균이 의문시되고 있고 정보부족 등 모험적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 시장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곰팡이제거제 판매현황 (단위 : 억원)			
기 업	판 매 량		비 고
	1993	1994(전망)	
유 공	90	150	수출 30
럭 키	5	10	수출개시
피 존	-	50	국내판매